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비교 분석

김정률 · 최근수*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Comparison of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Jeong Yul Kim and Keun Su Choi*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Chungbuk 363-791, Korea

Abstract: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Korea, which has been politically separated for the last 50 years, were compared. For this study,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Geology of Korea' published in North Korea (1996), 'Geology of Korea' published in South Korea (1999) and other geological publications were compared. Among the 1272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North Korea, 49 are for geochronology, 201 for mineralogy, 199 for petrology, 257 for structural geology, 93 for paleontology, and 473 for general geology. Out of these geological terminology, 657 (51.7%) have the same pronunciation and meaning as those used in South Korea, 370 (29.1%) are analogous words, and 245 (19.2%) cannot be understood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means of expression. Differences in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the two Koreas are thought to be mainly caused by language used only in North Korea, different foreign language interpretation, different initial law application, new connecting word construction, and influence from different cultures.

Keywords: geological terminology, comparison, South Korea, North Korea

요 약: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의 지질'과 남한에서 발행된 '한국의 지질'을 중심으로 남북한에서 발행된 지질학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남북한의 지질학 용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북한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질학 용어의 총 수는 1272개이다. 이들 지질학 용어는 지질연대학 용어가 49개, 광물학 용어가 201개, 암석학 용어가 199개, 구조지질학 용어가 257개, 고생물학 용어가 93개, 일반지질학 용어가 473개이다. 지질학 용어의 남북한 이질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지질학 용어 중에서 남북한간에 표현과 의미가 같은 동음 동의어는 657개로 약 51.7%이고, 표현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쉽게 그 뜻이 이해되는 동의 유사어는 370개로 약 29.1%이며, 남북한간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쉽게 뜻이 통하지 않는 이음 동의어는 245개로 약 19.2%이다. 남북한간에 지질학 용어가 이질화된 원인은 한글 전용 원칙의 차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두음법칙 적용의 차이, 붙여쓰기 표현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지질학 용어, 비교, 남한, 북한

서 론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공동체였으나 외세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각각 독립 정부를 세운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 전 부문에서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통일 시대에 민족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분단으로 비롯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진단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시도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남북한은 '한반도'라는 지질학적 공통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반도의 지질 현상을 바로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며 더불어 남북한의 지질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지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각각 연구한 한반도 지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지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소통과

*Corresponding author: cks1110@hanmail.net
Tel: 82-2-565-3291
Fax: 82-2-565-4352

의사의 전달은 남북한 지질학자들간에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사용하는 지질학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나아가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또한 지질학이 지역성과 더불어 국제성을 띠는 것을 고려할 때 지질학 용어의 의미를 남북한이 공유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술 분야에 있어서 남북한의 비교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주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내용의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는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영오(1992)는 북한 고등중학교의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물리 용어를 비교 분석한 바 있고, 정봉영(1994)과 심원보(1997)는 화학 용어의 남북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양락(2000)은 남북한 중등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북한 교육과정에서 지질학 분야는 지리 교과에 포함되어 있고, 천문학 분야는 물리 교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남북한의 지질학 관련 비교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남북한 지질학의 비교 연구가 수행되었다. 대한지질학회(1999)는 「한국의 지질」에서 남북한의 지질 시대와 층서에 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성희(1998)는 남북한 지리교육 비교에서 지질학 관련 용어의 남북한 비교를 수행하였고, 이양락(2000)은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구과학 용어를 비교하였다. 김성희의 연구는 지리학의 관점에서 지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지질학 용어의 일부를 비교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양락의 연구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지질학 용어가 한자 중심인 남한 용어와는 달리 우리말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밝혔지만,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질학 용어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한만길 등, 1999)에서는 남북한 교육 용어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비교한 자연지리 용어 부분에는 지질학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비교 분석한 지질학 용어 또한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일부 내용에 한정되어 있어 북한 지질학 용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질학 용어를 남한의 지질학 용어와 비교·분석하여 남북한 지질

학 용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질화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의 지질」(백룡준 등, 1987)을 중심으로 「백두산 총서」(리돈 등, 1993), 중등교사용 「지리용어사전」(김일성 종합대학, 1972), 「고등중학교 지리」(임경승 등, 1995), 「고등중학교 지리5」(조석형 등, 1995) 「대중과학사전」(최제덕 등, 1966)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북한의 지질학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남한의 지질학 용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출판된 「한국의 지질」(대한지질학회, 1999)과 「지질학 사전」(양승영, 1998), 「지질학 용어 사전」(홍영국, 1989), 「지질학 개론」(정창희, 1994) 등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지질학 용어 중에서 그 표현과 의미가 애매하여 남한의 지질학 용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지질을 소개하기 위해 영문으로 출판한 「Geology of Korea」(Pack et al., 1996)의 내용을 「조선의 지질」의 내용과 비교하였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강철린 등, 1992)과 「조선대백과사전」(강경구 등, 1995)에 나오는 지질학 용어도 함께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인 북한에서 발행된 지질학 관련 자료들을 북한 당국에서는 국가의 중요 기밀 사항으로 간주하여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다양한 북한의 지질학 관련 자료들을 획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자료의 부족은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지질학 용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었고,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다르게 사용되는 북한의 지질학 용어를 남한의 지질학 용어로 번역하는 데에도 많은 제한을 주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한 지질학 관련 선행 연구의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분석의 틀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이론적 배경

‘문화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야만어가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북한에서는 ‘표준어’라는 말을 버리고 대신 문화어라고 한다. 혁명의 수도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민족적 특성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표준어라고 하면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릇 이해되므로 바꾸어야 한다고 한 1966년 5월 김일성 교시에서 이 말이 시작되

었다(김민수, 1989). 북한의 표준어가 평양말로 기준을 바꾸고, 정책적으로 힘든 한자말과 외래어를 없애고 고유한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살려 쓰는 과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다듬은 수많은 새로운 언어가 채택되었다. 이 결과 그 문화어와 남한의 표준어와의 격차는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북한의 언어 정책

남북한 언어가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 통일안」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이질적인 느낌을 갖게 된 것은 남북한 당국이 추구해 온 언어 정책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언어란 의사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보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혁명 수행의 중요한 무기이며 인민 대중에 대한 선전 교양 수단이고 원수에 대한 강력한 투쟁 도구”로 본다(김석향, 2002).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언어정책을 추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분단 50여 년 동안 민족어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남한의 언어 정책과는 달리 통제적이고 체계적이다. 곧 남한의 언어 정책은 어느 정도 자유방임적인 것이어서 언중이 지향하는 바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용법 중심의 언어 정책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언어 정책은 지극히 획일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당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그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당 중심의 언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서태길, 1989). 즉, 북한은 언어를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보고 이를 그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이용하자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그 순수성이 의심스러우며 이러한 점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가속시킨다고 하겠다.

북한의 언어 정책 시행 기관

남한의 언어 정책은 조선어학회의 뒷받침으로 미군 정령의 문교부가 주관하였으며, 문교부 안에 비상설 기관으로 국어 심의회가 국어 문제에 대한 심의를 해왔다. 1984년 학술원 산하에 국어 연구소가 발족되었고 국가 차원의 국어 연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가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북한의 언어 정책은 1946년 조선어문연구회에서 관장해 오다가 그 뒤 1952년 이후는 국가 기관인 과학원 산하의 어문학 연구소에서, 다시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로 옮겨져 언어 정책을 주

도하여 왔다. 또, 국어사정위원회가 내각에 설립되어 문자 개혁 등의 문제를 주도해 왔다(정경인, 1989). 북한의 언어 정책은 당국의 주도 하에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 나갔던 것이 그 특징이다.

남북한의 언어규범 비교

남북의 언어 이질화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어문 규정을 살펴보면, 남한에서는 한글 전용에 중점을 두었으나, 실제로는 한글과 더불어 한자도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써오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철저한 한글 전용의 원칙에 충실하게 말다듬기를 시행하고 있다.

남북한의 맞춤법 비교: 맞춤법은 해방 직후 남북한이 공통되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실시하여 10여 년 간 남북한이 차이가 없었으나, 1954년 북한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수정을 가한 「조선어 철자법」을 시행함으로써 서로 엇갈리게 되었고, 1966년 「조선말 규범집」을 공포 함으로써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남한과 간격이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정도복, 1998). 현행 맞춤법에서의 남북한의 차이는 자음 모음의 순서, 어두의 ㄹ, ㄴ 표기, 사잇소리 현상의 표기 등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말 자모의 수를 24자에서 40자로 할 것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의 비교: 띄어쓰기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은 1964년, 1966년 두 차례의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되도록 붙여쓰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단어에는 개념의 단위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어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붙여 쓰도록 하고 있다. 띄어쓰는 단어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덩이’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이러한 의미적 단위를 표기의 단락 호흡으로 잡고 있고 있다(시정근, 1989). 또한 북한의 학술 용어에는 보조 용언이나 합성 용언이 여러 개 붙어서 된 말들이 많다.

남북한의 한자음 표기법 비교: 한자어는 표의문자이고 이러한 한자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문자 생활에서 익숙하게 쓰였다. 또한 중국식 한자음이 아니라 우리의 발음으로 표기하기 위한 원칙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정해졌고 그 동안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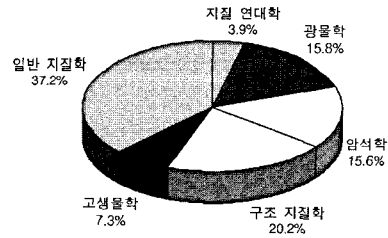
러 차례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남북한의 한자음 표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음법칙의 적용여부에 있다(홍미량, 1989). 남한에서는 두음법칙에 따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나, 북한의 한자음 표기는 형태주의 원칙에 의한 발음을 존중하여 한자음은 어느 위치에서는 본음대로 적으므로 ‘ㄹ’이나 ‘ㄴ’ 두음이 인정되고 두음법칙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비교: 외래어의 표기에 있어서 남한은 국제음성기호에 의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 있어서는 국제음성기호 즉, 한국음성기호에 의한 표기보다는 로씨야어에 의한 표기가 우선한다. 예컨대, 로씨야어 이외의 외국어로부터 유래한 외래어로서 로씨야어와 비슷한 것은 가급적 로씨야어의 표기법을 따르고, 라틴어로부터 유래하는 학술용어에 대해서는 로씨야어식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배현숙, 1989). 또한 파열음 표기에 있어서도 남한은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북한에서는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어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또한 1967년 이후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 일어나 민족적 특성을 살리려는 목표로 많은 외래어에 대한 대폭적인 정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많은 외래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남한과 표기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의 어휘 정리: 북한의 어휘 정리의 기본 방향은 우리말에 침투한 쓸 데 없는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치고 고유어에 기초하여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남성우, 정제영, 1990). 구체적인 방침은 첫째로, 같은 뜻의 단어로써 고유어와 외래적 어휘의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유어를 쓴다. 둘째로, 한자말과 외래어를 일정한 범위에서 국한시켜 놓고 그 사용을 제한하여 굳어진 것만 쓰도록 한다. 셋째로, 고유어 어근에 따라 새말을 적극 만들어 쓰도록 한다. 넷째로, 인민들 속에서 널리 쓰이는 좋은 말을 적극 찾아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분류	용어 수
지질 연대학	49 개
광물학	201 개
암석학	199 개
구조 지질학	257 개
고생물학	93 개
일반 지질학	473 개
계	1272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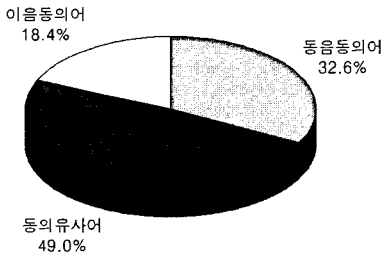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North Korea.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비교 분석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질학 용어를 분석해보면 「조선의 지질」에 약 1100여 개의 지질학 용어가 언급되어 있고 「자연지리 용어사전」에 약 220여 개, 고등중학교 지리교과서에 약 240여 개의 지질학 용어가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지질학 용어의 수를 제외하고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질학 용어의 총 수를 살펴보면 약 1272개에 이른다.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질학 용어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질학 용어를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 광물학 관련 용어, 암석학 관련 용어,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 고생물학 관련 용어, 일반 지질학 관련 용어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와 차지하는 비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체 지질학 용어 중에서 일반 지질학 관련 용어가 473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가 257개, 광물학 관련 용어가 201개, 암석학 관련 용어가 199개, 고생물학 관련 용어가 93개,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가 49개를 차지한다.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이질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16
동의 유사어	24
이음 동의어	9
계	49

Fig. 2. Difference of geochron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질학 용어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지질학 용어와 비교하여 그 차이 정도에 따라 동음 동의어, 동의 유사어, 이음 동의어로 나누었으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동음 동의어: 남북한간에 지질학 용어의 표현과 의미가 같은 용어이다.
- ② 동의 유사어: 남북한간에 지질학 용어의 표현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읽는 즉시 그 뜻이

통할 수 있는 용어이다.

③ 이음 동의어: 남북한간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지만 각각 지질학 용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뜻이 쉽게 통하지 않는 용어이다.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

북한에서 사용되는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는 49개이다. 이 중 남한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33개로 약 67.4%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이질화된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 중 대부분은 남북한이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의 유사어가 대부분이고 남북한의 이질화가 커서 서로 이해하기 힘든 이음 동의어는 9개로 약 18.4% 정도에 불과하다(Fig. 2).

「조선의 지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지질 시대의 분류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지질 학회에서 분류하는 원칙(대-기-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신생대의 세부 표기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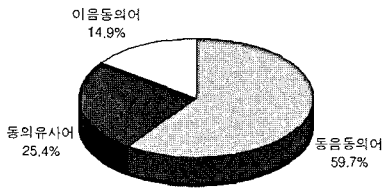
「조선의 지질」에 사용된 지질 연대학 관련 용어 중 특기할 점은 남한의 「한국의 지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대 층서 단위가 많이 사용되어 시대 층서를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geochron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신생대	제 4기 현세 상세 중세 하세	제 4기 홀로세 (현세) 플라이스토세 후세 플라이스토세 중세 플라이스토세 전세	
	제 3기 상신세 중신세 점신세 시신세 고신세	제 3기 플라이오세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중생대	백악기 유라기 삼첩기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고생대	페름기 석탄기 데본기 실루루르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	페름기 석탄기 데본기 실루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캄브리아기	

Table 2. Comparison of chrono stratigraphic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영어	비고
다닌년	다니안	Danian	제 3기 팔레오세 하부
츄론년	투로니안	Turonian	백악기 상부의 하부
알브년	알비안	Albian	백악기 하부의 상부
압트년	압티안	Aptian	백악기 하부의 중간
캘로웨이년	칼로비안	Callovian	쥐라기 상부의 하부
래트년	래티안	Rhaetian	트라이아스기 상부의 상부
노리년	노리안	Norian	트라이아스기 상부의 중간
카르니년	카르니안	Carnian	트라이아스기 상부의 하부
바슈끼리년	바슈키리안	Bashkirian	석탄기 상부
프란트년	프라스니안	Frasnian	데본기 상부
지웨트년	기벤티안	Givetian	데본기 중간
루드로우년	루들로비안	Ludlowian	실루리아기 상부
란도웨이년	란도베리안	Llandoveryian	실루리아기 하부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120
동의 유사어	51
이음 동의어	30
계	201

Fig. 3. Difference of minera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광물학 관련 용어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사용되는 광물학 관련 용어는 201개이다. 이 중 대부분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거나 비슷하고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81개로 약 40.3% 정도이다.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의 대부분도 두음법칙의 무시에 따른 것과 외래어 표기의 차이에 따른 것이 많아 실제로 남한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이음 동의어는 30개로 약 14.9%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다 (Fig. 3).

Table 3에 북한에서 사용되는 광물학 관련 용어 중에서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의 일부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광물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금속광물에는 ‘광’자를 붙여 비금속 광물과 구별하여 나타내고 있는 점이 남한의 경우와 다르다.

암석학 관련 용어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에서 사용되는 암석학 관련 지질학 용어는 199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암석명 중에는 석영건운모흑운모편암, 세립석영장석질규암, 회색층상고회질석회암, 암회색호상규질천매암, 백운모록니석회질편암, 적자색건운모록니석회천매암 등과 같이 여러 광물명과 암석의 특징을 연속적으로 붙여서 하나의 암석명으로 표현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용어를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암석학 용어의 수는 199개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199개의 암석학 관련 용어 중에서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은 79개로 약 39.7% 정도가 다르게 사용되었다. 다르게 사용되는 암석학 용어들의 대부분도 광물학 용어와 마찬가지로 암석명을 통해서 그 의미가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고 남한의 용어와 전혀 달라서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36개로 약 18.1% 정도이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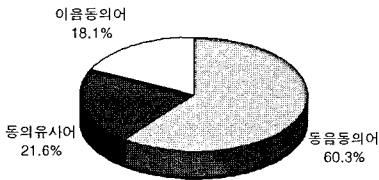
Table 4에 암석학 관련 용어 중에서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일부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조사한 북한에서 사용

Table 3. Comparison of minera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갈철광	갈철석	엽랍석	파이로필라이트
굽돌	납석	윌프람	텅스텐
나트륨장석	소다장석	자류철광	자류철석
돌소금	암염	자철광	자철석
돌솜	석면	적철광	적철석
랍정석	납정석	조회장석	안데신
류화철	황화철	지르콘석	저어콘
리자르석	리자다이트	콜롬브석	콜럼바이트
망간광	망간	크롬철광	크롬철석
명반석	알루마이트	탄산철광	탄산철석
모나즈석	모나자이트	탄탈석	탄탈라이트
몬모릴론석	몬모릴로나이트	탄탈콜롬브석	탄탈콜럼바이트
방연광	방연석	티탄철광	티탄철석
빠르가시트	파가사이트	포창연광	포창연석
섬아연광	섬아연석	화산유리	흑요석
쇠돌	철광석	황동광	황동석
아회장석	비토나이트	황철광	황철석
알곶기	결정곶기	취수연광	취수연석
에기린휘석	이지린휘석	취안광	취안석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120
동의 유사어	43
이름 동의어	36
계	199

Fig. 4. Difference of petr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되는 지질 구조와 관련된 용어는 257개이다. 여기에서는 지층에 나타난 지질 구조 뿐만 아니라 암석에 나타난 구조, 지형의 특징 등을 나타낸 것을 모두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로 분류하였다. 이들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 중에서 남한과 표현이나 뜻이 다르게 사용된 것은 130개로 약 50.64% 정도에 이르지만, 대부분 두음법칙의 적용 차이나 용어의 한글화에 기

인하는 것들이고 남한의 지질학 용어와 표현과 뜻이 전혀 달라 이질화 정도가 큰 이음동의어는 62개로 24.1% 정도이다(Fig. 5).

Table 5에 구조 지질학 관련 용어 중 남북한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의 일부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고생물학 관련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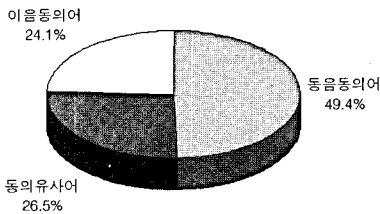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사용되는 고생물학 관련 용어는 93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식물 화석과 포분화석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있어 원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표기한 고생물명의 수는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고생물학 관련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93개의 고생물학 관련 용어 중에서 대부분은 남한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의 용어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34개로 약 36.6%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고생물 관련 용어가 남한의 용어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17개 정도로 약 18.3%이다(Fig. 6).

Table 6에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고생물

Table 4. Comparison of petr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거정암	거정화강암	소장암	노라이트
거정암광상	페그마타이트광상	알갱이거정암	조립결정질암
그림자모양혼성암	음영혼성암	알고즈사암	알코스사암
꼬멘트암	코멘다이트	양배암	드립린
눈알모양화강암	안구상화강암	이장암	섬장암
대력암	거력암	자갈규암	역질규암
립상현무암	조립현무암	정각섬암	사장석각섬암
몬조니암	몬조나이트	조면조립암	조면조립현무암
변소장암	변성노라이트	조장반암	알바이트반암
변중암	변질암	포로각력암	포획각력암
변휘장암	변성반려암	포로암	포획암
분사암	실트암, 미사암	해양각현무암	대양저현무암
분암	빈암	혈암	세일
사니암	사질암	혼성암	미그마타이트
사력암	사질역암	휘암	휘석암
세정암	세립결정질암	휘장암	반려암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127
동의 유사어	68
이음 동의어	62
계	257

Fig. 5. Difference of structural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학 용어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일반 지질학 관련 용어

「조선의 지질」을 중심으로 조사한 북한에서 사용되는 일반 지질학 용어는 473개이며 그 중 남한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반지질학 용어는 258개로 54.5%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다르게 사용하는 일반 지질학 용어의 대부분도 남북한의 맞춤법 차이와 용어의 한글 전용 여부에 기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것들이고 남한의 지질학 용어와 표현이 크게 달라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음 동의어는 91개로 약 19.2% 정도이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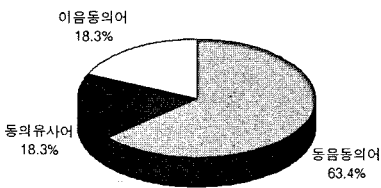
Table 7 에는 북한에서 사용되는 일반지질학 용어 중에서 남한과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차이

북한에서 출판된 지질학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북한에서 사용되는 지질학 용어들은 남한의 지질학 용어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1272개의 전체 지질학 용어 중에서 동음 동의어는 657개로 약 51.7%를 차지하고 동의 유사어는 370개로 29.1%, 이음 동의어는 245개로 19.2%를 차지한다. 따라서 남북한이 같은 지질학 용어를 사용하는 동음 동의어를 제외하고 전체 지질학 용어 중 615개 즉, 약 48.3%가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다르게 사용하는 지질학 용어 중에서 동의 유사어의 대부분은 두음법칙의 적용여부와 지질학 용어의 한글화 표현, 외래어의 러시아식 발음 차이에 따라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남북한이 지질학 용어의 의미를 서로 이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이질화 정도가 커서 서로 이해하기 힘든 지질학 관

Table 5. Comparison of structural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강가다락층	하안단구	바다가벼랑	해식절벽
강자리호	우각호	바다밑산줄기	중앙해령
교직구조	교차구조	바다자리호	석호
구불구불흐르는하천	사행천, 곡류	바다홈	해구
구조해명	구조분석	반달모양모래언덕	바르한
궁륭툽기	돛형용기	배사핵부	배사중앙부
깎입골	침식계곡	벼랑돌무지	테일러스, 에추
내리끊임	정단층	부채땅	선상지
누은습곡	횡외습곡	빙하모래질언덕	빙퇴석
대륙비탈면	대륙사면	사행골	사행천
돌고드름	종유석	빙하모래질언덕	빙퇴석
돌기둥	석주	선회구조	윤회구조
돌순	석순	울리끊임	역단층
땅끊임	단층	우묵땅	분지
떡모양화산	성층화산	위층	사층리
류상석리	유동조직	자름면	단면
륙대지괴	대륙지괴	전반적습곡대	대규모 습곡대
물동층	리드마이트	좁고긴우묵땅	지구대
모래부리	사취	중모양화산	중상화산
모래언덕	사구	주름	습곡
바다가굴	해식동굴	층결	층리
바다가다락망	해안단구	큰물쌓임층	범람원 퇴적층
바다가모래둑	해빈	판괴구조	판구조
바다가모래언덕	해안사구	평이단층	수평단층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59
동의 유사어	17
이음 동의어	17
계	93

Fig. 6. Difference of paleont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련 용어인 이음 동의어는 전체 지질학 용어 중 약 19.2% 정도이다(Fig. 8).

남북한간에 지질학 용어가 이질화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Tabl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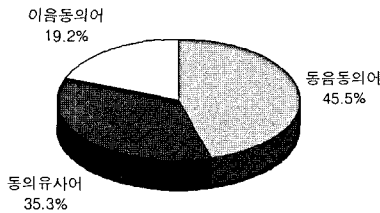
첫째, 북한에서는 모든 용어를 가능한 한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한자어로 된 지질학 용어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이를 고유한 우리말로 풀어서 만든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주체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였다.

둘째, 남북한은 외래어 표기법에서 차이를 가진다. 인명이나 지명과 같이 외국어를 써야 할 경우에 남한은 영어식 발음을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은 러시아식 발음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은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에서 차이를 가진다. 남한에서는 어두음 ‘ㄹ, ㄴ’은 ‘ㄴ, ㄹ’로 표기하도록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Table 6. Comparison of paleont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검층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리트	스트로마톨라이트
고추석류	소추목류	씨류	종자식물
공생화석	공존화석	옛고사리류	고양치류
파리조개	암모나이트	옛비늘나무류	고인목류
라자식물	나자식물	옛석송류	고석송류
람조류	남조류	옛솔잎란류	고솔잎란류
련쇄산호	사슬산호	유이화석식물	유사식물화석
록조류	녹조류	주각석류	두족류
물고기류	어류	추치류	코노돈트류
미체화석	미화석	털코끼리	매머드
상관산호	관상산호	포분화석	포자화분화석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215
동의 유사어	167
이음 동의어	91
계	473

Fig. 7. Difference of general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이를 발음할 수 있다고 하여 어두음의 ‘ㄹ, ㄴ’을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차이는 남북한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넷째, 북한의 단어에는 개념의 단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은 모두 붙여 쓰도록 하고 있어 이를 띄어 쓰도록 한 남한의 규정과는 달리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지질학 용어에서는 여러 개의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지질학 용어로 나타내는 경우가 남한에서보다 매우 많다.

다섯째, 남북한은 오랫동안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서로 다르게 변해 왔다. 지질학 용어에 있어서 한자어 사용을 보면 북한은 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남한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남한에서도 일부 용어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복수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도 출판물에 따라 쓰이는 용어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지질학 용어의 예로는 검층석(스트로마톨라이트)와 스트로마톨리트(스트로마톨라이트), 대력암(거력암)과 거력암(거력암), 돌물(마그마)과 암장(마그마), 층결(층리)과 층리(층리) 조중지괴(한중지괴)와 조중록대(한중지괴) 용암떡(화산탄)과 화산탄(화산탄) 등이 있다.

결론 및 제언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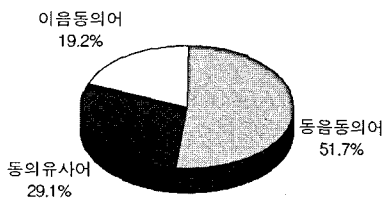
연구에서 비교·분석한 북한의 지질학 관련 서적에 의하면 오늘날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질학 용어의 총 수는 1272개이다. 이들 지질학 용어의 세부 구성은 지질 연대학 용어가 49개, 광물학 용어가 201개, 암석학 용어가 199개, 구조 지질학 용어가 257개, 고생물학 용어가 93개, 일반지질학 용어가 473개이다.

지질학 용어의 남북한 이질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지질학 용어 중에서 남북한간에 표현과 의미가 같은 동음 동의어는 657개로 약 51.7%이고, 표현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쉽게 그 뜻이 이해되는 동의 유사어는 370개로 약 29.1%이며, 남북한간에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쉽게 뜻이 통하지 않는 이음 동의어는 245개로 약 19.2%이다.

남북한간에 지질학 용어가 이질화된 원인은 한글

Table 7. Comparison of general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북한		남한	
가로파	횡파	소금기	염분
가물	가뭄	시준층	기준층, 건층
강바닥물매	하도 기술기	쌓임작용	퇴적 작용
굽인돌이	모퉁이, 굽잇길	암장	마그마
기질암	모암	암장생구조	마그마 기원 구조
각임작용	침식 작용	암장진화	마그마 분화
낮아지는 운동	침강 운동	요란	변형
높아지는 운동	용기 운동	용암떡	화산탄
당길힘	장력	윤기	광택
대륙각	대륙 지각	이행대	변형대
돌물	마그마	작열감량	열손실량
동위체년대	방사성 연대	조기암장	분화 초기 마그마
땅겉면	지표면	중심성	반심성
떨기	진동	지각발전	지각 형성
를동운동	조류 운동	지괴(massif)	육괴(massif)
리프트암장활동	열곡 마그마 활동	비탈각	경사
만기암장	분화 후기 마그마	지핵	핵
만틀	맨틀	큰물	홍수
물모이구역	유역	판괴운동설	판구조론
물스밈특성	투수성	포로체	포획체
바다불면	해수면	풍화각	풍화층
바람각임	풍식	해양판괴도입	해양판 섭입
배태암	모암	핵부	중앙부
사곶점	교차점	후암장작용	후기 마그마 분화 작용
세로파	종파	흐름성분출	유동 분출



분류	개수
동음 동의어	657
동의 유사어	370
이름 동의어	245
계	1272

Fig. 8. Difference of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전용 원칙의 차이,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두음법칙 적용의 차이, 붙여쓰기 표현의 차이,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지질학 용어에 관한 연구가 아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만으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에선 성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남북한간에 서로 상이하게 사용되는 지질학 용어는 약 48.3%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남북한의 지질학 용어가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지만 남북한 지질을 서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질화가 큰 지질학 용어는 약 19.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지질학 용어도 앞으로 남북한 교류를 통하여 서로가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다고

Table 8. The cause of differences in geological terminology used in South and North Korea

이질화 원인	예
1. 한글 전용 원칙의 차이 북한 - 한글 전용 원칙 적용 남한 -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	눈알모양화강암(안구상 화강암), 돌고드름(종유석), 큰물쌍임층(범람원), 강가다락층(하안 단구), 땅굴입(단층), 물모이구역(유역) 등
2. 외래어 표기법의 차이 북한 - 러시아식 발음을 사용 남한 - 영어식 발음을 사용	트레이프계열(솔리아이트계열), 썬비리륙대(시베리아 탁상지), 빼름기(페름기), 헤르신(헤르시니아) 등
3. 두음법칙 적용의 차이 북한 -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음 남한 - 두음 법칙을 적용함	니암(이암), 렉암(역암), 련흔(연흔), 립자(입자), 루대구조(누대 구조), 린회석(인회석), 립기운동(용기 운동) 등
4. 붙여쓰기 표현의 차이 북한 - 하나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붙여쓰 남한 - 발음에 따라 띄어쓰기를 함	괴상분사질점판암(괴상 미사질 점판암), 철반석류석흑운모편마암, 암록색안구상흑운모각섬석편마암 등
5.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 북한 -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음 남한 -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음	암장진화(마그마 분화), 동위체년대(방사성 연대), 등원암장(모마그마), 룰동운동(조륙 운동) 등

※ () 안의 표현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지질학 용어이다.

생각된다.

북한 지질학 용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두 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한자어와 외래어는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는 러시아식 표현을 따르고 있으며 여러 단어를 조합한 합성형 용어가 많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지질학 용어가 남한의 지질학 용어보다 우리말을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으며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보이지만 지나친 우리말 풀이쓰기를 한 결과로 개념의 축약화란 측면이 부족하고 외래어 표기에 있어 국제 표준인 영어식을 따르지 않아 국제성의 측면에서는 남한의 지질학 용어보다 다소 불리해 보인다. 앞으로 지질학 용어의 통합에 있어서 남북한 용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서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지질학 용어의 통합과 한반도 지질의 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의 지질학 용어의 장단점을 수용하고 상호 보완하기 위한 「남북한 지질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운 고유의 우리말로 된 지질학 용어를 개발하고 외래어로 된 지질학 용어를 우리말로 적합하게 바꾸는 작업은 남북한 지질학계가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한 지질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통합된 「지질학 용어 사전」을 발간해야 한다. 통합된 지질학 용어 사전은 남북한 지질학자들이 남북한의 지질을 쉽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남북한 지질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지질을 통합한 「한반도 지질」을 발간해야 한다. 통합된 한반도 지질의 발간은 남북한 지질학의 큰 발전과 실질적인 남북한 지질학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읽고 많은 조언을 주신 김종헌, 안건상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 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강경구 외 523인, 1995,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평양).
 강철린, 김덕성, 박종서, 박태훈, 차광준(지질, 지리 분야), 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평양).
 김민수, 1989, 북한 문화어와 어학혁명.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3-5.
 김석향, 2002,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연수원(편집), p. 185-190.
 김성희, 1998, 남북한 지리교육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09 p.

- 김일성종합대학, 1972, 지리용어사전(자연지리편). 교육도서출판사(동경), 364 p.
- 남성우, 정재영, 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p. 77-89.
- 대한지질학회, 1999,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802 p.
- 배현숙, 1989,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비교 분석.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149-164.
- 백두산 탐험대(리돈 외 17인), 1993, 백두산 총서. 과학기술출판사(평양), 367 p.
- 백룡준, 리봉기, 채수항, 1987, 조선의 지질. 과학 백과사전출판사(평양), 332 p.
- 서태길, 1989, 북한의 언어 정책 고찰.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21-35.
- 시정근, 1989, 남북한 띄어쓰기 규정의 비교.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77-84.
- 심원보, 1997, 남북한 화학 용어의 차이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건양논취(建陽論最), 1997년 제 5호, 47-56.
- 양승영, 1998, 지질학사전. 교학연구사, 1111 p.
- 이양락, 2000, 남북한 중등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한국지구과학학회지, 제21권 1호, 1-12.
- 임경승, 차용걸, 1995, 고등학교 지리1. 교육도서출판사(평양).
- 전수태, 최호철, 1989, 남북한 언어비교. 도서출판 녹진, p. 11-54.
- 전영오, 1992, 북한 물리 교과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6 p.
- 정경인, 1989, 북한의 언어정책 시행기관.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37-54.
- 정도복, 1998, 남북한 언어 이질화 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 제5집, 7-29.
- 정봉영, 1994, 남북한 화학용어 비교. 과학과 기술, 제 27권 3호, 22-23.
- 정창희, 1994, 지질학 개론. 박영사, 642 p.
- 조석형, 문영빈, 한태식, 장인규, 1995, 고등학교 지리5. 교육도서출판사(평양).
- 진창훈, 1995, 고등학교 지리2. 교육도서출판사(평양).
- 최제덕, 리명현, 주계엽, 김장근, 신숙정, 1966, 대중과학사전(지질편). 군중문화출판사(평양), 606 p.
- 한만길, 이찬희, 이인제, 손용택, 김정래, 1999,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27 p.
- 홍미량, 1989, 남북한의 한자음 표기법 비교. 북한 언어 연구회(편집), 북한의 어학 혁명, 도서출판 백의, p. 135-148.
- 홍영국, 1989, 지질학용어사전. 형설출판사, 223 p.
- Paek, R.J., Kang, H.G., and Jon, G.P., 1996, Geology of Korea. Foreign Languages Books Publishing House, Pyongyang, 631 p.

2003년 9월 20일 원고 접수
2003년 11월 15일 수정원고 접수
2003년 11월 15일 원고 채택